
 인천광역시	<h1 style="margin: 0;">보 도 자 료</h1>		 인천의꿈* 대한민국의미래
	배포일자	2022년 10월 24일(월) 총 3매	
담당 부서 시정혁신담당관	담당자	• 행정혁신담당 김신민 ☎440-1651 • 담당자 김은숙 ☎440-165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Z세대 공직자들과 소통으로 통하는 ‘인천통.통.’
- 24일, 유정복 시장 MZ세대 공직자 50여명과 세대 공감 토크 콘서트 개최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4일 시청 중앙홀에서 유정복 시장을 비롯 시, 군·구, 공사·공단 등 50여명의 새내기 공직자들과 함께하는 ‘인천통통’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민선8기 비전제시 및 혁신 우수사례와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2022 인천 혁신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올해 혁신주간 행사 부제는 ‘인천, 혁신의 나래를 펴다’로, 민선8기 원년인 올해 성공적인 시정을 펼치고자 도약하는 힘찬 날개 짓을 형상화해 표현했다.

이날 콘서트는 <인천, 소통으로 통하다>라는 부제를 가지고 인천의 미래를 이끌어 갈 대표 MZ세대와 유정복 시장이 세대 공감과 2022년 새롭게 출범하는 인천시 민선8기 비전과 세대 간 갈등 완화를 통한 조직문화 개선 및 혁신 문화 확산에 대해 격의 없이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인천시 조직도 사기업 못지않게 베이붐 세대부터, X, Y, Z세대까지 현재 다양한 세대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어 조직 내 갈등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세대 간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토크 콘서트에서 유시장과 새내기 공직자들은 서로의 MBTI, 신조어 능력고사, 세대간 소통을 위한 꿀팁, MZ세대 공직자로서의 필요자질 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이어갔다. 특히 MZ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해 인생 선배인 유 시장의 조언을 들어보고, 조직문화 변화의 필요성과 민선8기 시정방향 등을 즉문즉답으로 진행하며 꾸며졌다.

유정복 시장은 “우리 공직에도 MZ세대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기성세대와 사고방식,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 등으로 조직 내 갈등이 부각되고 있다”며 “세대간·직급간 장벽없이 서로 이해하고 권위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해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개방적 공직 분위기 조성에 모든 세대가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관련 사진은 행사(14시)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붙임 1. 행사장 도면

2. 토크콘서트 사진(행사 후 제공)

